

남원시 내년 예산 9727억 편성... 올해보다 537억 감소

지역 재생·복지·농업·안전 등 시민 밀착 사업 중점 편성 복지분야 2488억 전년비 10% ↑

남원시가 전년대비 500억여원이 줄어든 9727억 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남원시는 이번 예산안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축소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537억원이 줄었지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요 목표로 지역 재생,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업, 안전 등 분야를 중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중에서는 먼저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

활력사업 예산이 대폭 편성된 가운데 폐교된 서남대부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선정됨에 따른 부지 매입비 205억원과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등 269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향후 글로벌캠퍼스 일원을 교육·창업·문화 거점의 공간으로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한 '복합 생활거점 지역활력타운' 조성 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15억원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2488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10% 228억원이 증액됐다. 시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80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8억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33억원 ▲경로당 기능보

강사업 13억원 ▲남원형 어린이집 지원 2억4000만원 ▲아이맘행복누리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개관·운영 1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관련 사업비로 ▲교육기관 보조사업 22억원 ▲학생들을 위한 미래채용사업 15억원 ▲청소년시설 활동지원사업 25억원 ▲웃살장 조성사업 30억원 ▲복합형공공도서관 개관 20억원도 포함됐다. 고품질 시대 노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돌봄서비스 시행과 장비구축, 운영 등에 14억원이 편성돼 상시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24시간 건강·안전·돌봄이 가능한 인공지능 및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한다. 보건 분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50억원

▲남원시 보건소 증축 39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26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업 분야에는 ▲농로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지원 205억원 ▲기반소득을 위한 직불금 420억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40억원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42억원 ▲원예용 세미스마트 팜 지원사업 10억원 ▲농기계 구입비 30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 8억원 등이 있다. 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2억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원 ▲시민 안전보험 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는 ▲미래 산업을 위한 바이오산업 32억원 ▲드론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사업 30억원 ▲남원형 렉스타트업 사업 3억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109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합파우아트밸리 조성사업 64억원 ▲계절별 대표 축제 운영으로 로컬관광 활성화 사업 44억원 ▲만인공원 기본계획 용역 4억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 및 정비사업 19억원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조성사업 12억원 ▲도시 가로망 정비 223억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담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내년도 교부세 교부액 500억원 감액이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중국 관광객 유치 여행사 팸투어



중국 호북성 우한시 국영여행사 등 대표단이 정읍시 칠보면 무성서원을 탐방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중국 호북성 우한시의 대형 국영여행사 등 9개 여행사의 대표단을 초청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전북 서남권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서남권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근 고창군, 부안군과 협력해 추진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후배이성 해외여행(그룹) 유

한회사는 1954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8개 국제여행사 중 하나인 호북성 최대의 국영여행사이고,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여행사 중 하나인 청년국제여행사 임원도 참가했다. 시는 3개 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세계유산을 소개하고, 참가한 여행사 대표단과 관광상품 개발을 협의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전북테크노파크 '지역기업 육성' 맞손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신 사업 발굴·중기 애로 해결 등

고창군과 전북테크노파크가 상호협력 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군청에서 전북테크노파크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북도의 산업·과학기술 혁신거점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신기술 창업의 촉진과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식기반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양기관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기획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및 발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 등 애로 해결을 위한 중합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기업의 성



장을 선도하는 혁신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테크노파크와 상호협력

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배우 이송이, 정읍 김치나눔행사 100만원 후원

정읍 무성서원 홍보대사

정읍 무성서원 홍보대사인 배우 이송이(JM라인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진)가 최근 정읍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5000포기 김치나눔행사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송이는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따뜻한 행사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이송이는 북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오직 너만을 기다려'와 '유정기' 2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해 베이징 국제영화제 인기상과 울투게터 아시아 워즈 선행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인친시 홍보광고 모델과 청소년연맹 홍보대사, 환경공단 공익광고 등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에너지엔, 250억 이집트 원전 사업 수주

군산 자유무역지구 플랜트설비 업체... 엘다바 원전 압력 용기 공급

군산 자유무역지구에 자리한 원자력·가스·화력 발전 플랜트설비 제작업체인 에너지엔(대표이사 박춘배)이 최근 이집트 엘다바(EI-Dabaa) 원전 1차축(돔 내)에 설치되는 250억원 규모의 안전등급(Safety Class 2) 압력용기 공급사업을 수주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엔은 원전 4기에 '안전등급' 압력용기와 스팀 터빈의 진동 흡수장치(Vibration Damper)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한다. 특히 압력용기들은 최고의 안전등급으로서 미국기계학회

(ASME) 뿐만 아니라 러시아규격(GOST)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NPPA)에서 발주하고 ASE JSC가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 엘다바 시(市)에 1200MW급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총사업비는 300억 달러(40조원)로, 오는 2028년 1호기의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지난해 8월,

ASE JSC로부터 원전 4기 터빈건물 등 3조원 규모의 2차 축 건설사업을 수주했는데, 최근 에너지엔이 같은 고객으로부터 원전의 핵심기자재를 수주한 것이다. 박춘배 대표는 "현 정부에서 해외 신규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설비 업계에 매우 고무적이다"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동과 유럽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 설립된 에너지엔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원자력발전 플랜트에 복수기와 탈기기, 열 교환기 및 터빈 발전기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군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라남도 JeollaNamdo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증사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사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사자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 사회복지증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당신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열매